

오토모 습지(Otomo Marsh, 오토모누마)는 1675년 완성된 55헥타르의 인공 저수지입니다. 구보타번(현 아키타현)의 다이묘였던 사타케 요시노부(1570~1633년)의 명으로 조성되었으며, 가뭄 시의 관개용 수원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오토모 습지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옵니다.

1998년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이 늪지는 10월에서 3월 사이에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유지입니다. 철새들은 늪지와 그 주변 논에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먹습니다. 특히 희소종을 볼 수 있는 시기에는 지역 내외 그 주변에서 야생 조류 애호가들과 사진가들이 모여듭니다.

철새가 가장 많을 때는 20만 마리나 되는 쇠기러기와 1만 마리의 백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황로, 흰죽지,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뿔논병아리, 청머리오리 등의 철새가 언제나 찾아옵니다.

오토모 습지는 가장 깊은 곳이 2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습지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근처의 요네시로강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일부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고, 습지 전체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도 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는 벤치, 화장실, 분수가 있는 잔디밭 피크닉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 JR 히가시노시로역에서 오토모 습지(오토모누마)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 걸립니다.